

“돌 열둘의 의미”

여호수아 4:1-14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 요단강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두 개의 돌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게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바닥에서 열두 개의 돌을 가져와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막상 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다시 진영을 추스리고 여러가지 작전도 수립해야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방금 전 건넌 요단강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수 4:1-3)

옛말에 원한은 흐르는 냇물에 흘러 보내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 1: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두개의 돌을 세우고 하신 것은,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

에게 여호와와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수 4:22-24)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 년동안 방황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의 표징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행위만을 본다면 복은 커녕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마땅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와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수 4:10-11)

2-3 백만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족히 하루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사장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육지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밟자마자 즉시 물이 원래대로 흘러 언덕에 넘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수 4:14)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십니다. 내가 위대해 지고자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뿐입니다. 리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모든 백성들과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하나로 똬똬 뭉치게 된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인한 영적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케 앞에서 끓어졌나니 곧 언약케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끓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수 4:6-7)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기쁨과 감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한번만,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히 자녀들에게 교훈을 심어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 절, 20 절을 보십시오.

‘정월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가에 진치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나눔의 시간

1.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인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경험합니다. 2018 년을 시작하며, 올 한해 내가 목표로 삼아야 할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열두개의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두개의 돌을 세우면서까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다짐하거나 결단이 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가져온 열 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빠져 나오자마자 제사장의 발이 서 있던 그 곳에 세웠고, 또 하나는 길갈이라는 안전 지대에 도착해서 다시 돌을 세웠습니다.

21 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물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라는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들의 자손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지 실제로 보여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십일조를 왜 해야 하는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 주어야 하며,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의 순간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생활의 모델을 몸소 보여주시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 지는 가정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닌 그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